



5면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음 11월 2일) 제3148호

대표전화 (063)288-9700

서경석 전개공 사장 3주 만에 사의 표명

부산지축은행 사태 당시 편파 변제 의혹에 사표 제출 김관영 도지사 “도민 여러분께 우려 끼쳐드려 사과” 도의회 “의회·집행부 간 대립 재발 않는 계기 삼길”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된 지 3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서 사장은 지난달 말 도의회 인사청문회 업무 능력 검증에서 의원들이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김관영 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전북도와 의회는 '23년 전라북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대립각을 보였으나 김관영 도지사가 21일 유감을 표명하며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하나, 유감 표명 후에도 부산지축은행 사태 당시 수만 명의 피해를 제쳐두고 편파적으로 변제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사의를 표명했다.

서 사장은 전북개발공사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며 “저로 인한 논란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를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된 지 3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함께 희망을 꿈꾸었던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다”며 “전북개발공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감사했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서경석 시장의 사직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경위를 떠나,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도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오직 전북발전만을 생각하고, 도민과 더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표현했다.

만시지탄이란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도의회는 논평을 통해 “서경석 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과 뒤늦은 사퇴는 도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는 검증된 인물이 추천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도청·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협약을 개정하겠다”며 김관영 도청의 협치와 소통행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1호 전북사랑도민증 수

2022. 11. 24. (목) / 전라북도



전북사랑도민증 제1호 수여식이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국내 벤처업계 1세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제1호 전북사랑도민’ 탄생

‘국내 벤처업계 1세대’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이사(사진)가 도내에 연고를 가졌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북에 대한 애郷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추진한 ‘전북사랑도민증’ 수여 제도의 첫 수여자로 선정됐다.

남 대표는 익산 출신으로, 1991년 창업 이후 2005년 국내 벤처기업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고 2012년부터는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한 국내 벤처업계 1세대 대표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남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 청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청년들에게 벤처·창업 정신을 설파하고 젊은 벤처기업인 육성에도 일조하는 등 전북도민들에게 자긍심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돼 전북도가 제1호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24일 남 대표에게 직접 전북사랑도민증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남 대표에게 “도전과 패기를 갖고 창업에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고희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달라”며 “남 대표가 써가는 성공 스토리가 도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출향 및 연고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면서 전북에 대한 애郷심을 갖게 하는 제도이다”며 “도에서는 앞으로 도민증을 받은

분들이 전북에 정주하는 도민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민사랑증은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향도민과 1년 이상 직장, 교육, 군복무 등을 위해 도에 거주한 경우를 포함해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고자들은 누구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도민증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도민증 발급과 함께 전북도가 제작·발행하는 소식지 3종을 보내주고 관광·문화시설 27개소 할인, 전북투어패스 1일권을 공동으로 제공될뿐 아니라 도내 방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실적 등을 인정한 전북투어패스 2일권 또는 도내에서 사용할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등 추가 혜택도 부여된다. /김경수 기자

내년 군산시 예산 1조6347억

올해보다 12.3% 증액...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

군산시는 24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회복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1조6,347억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2.3%가 증가한 1조6,347억으로 일반회계 1조4,878억, 특별회계는 1,469억원이다.

주요 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6,814억(41.7%), 지방교부세 5,280억(32.3%), 지방세 1,926억(11.8%), 세외수입 1,334억(8.2%), 조정교부금 563억(3.4%) 등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5,427억원(36.5%)을 편성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2,045억(13.7%), 산업및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309억(8.8%) 순이다.

시는 시민생활 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선순환의 미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상품권 국비 미지원에 대응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활용, 382억원을 투입 올해처럼 10%환인율을 적용한 군산비평상품권 3,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산업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는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

류비 지원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지원 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군산의 봄 조선헤안기재산업 등 신규사업과,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 등이 편성됐다.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미래세대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요금 실시,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 어린이숲 놀이터 조성 등을 편성했다.

친환경 전기차 생태계 조성 확대를 위해 중경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하는 한편, 농·수산업 부활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산기공 종합단지 조성 등을 편성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도, 종교시설 안전점검 추진... 내달 9일까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도내 종교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연말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종교시설

16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대상은 수용인원 1,000명 이상 교회 등 47개소, 전통사찰 119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체계, 시설물 이상 유무, 다중이용 시설 이동경로 및 위험요소 등이다. 아울러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목조건물 화재예방

을 위한 소방방재 시스템 작동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전선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연말연시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종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축! 전주매일 캠페인